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5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8일 (음력 1월 13일) 수요일

## 바른미래당 광주·전남 현역의원 전원 불출마

바른미래당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전원 불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27일 광주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역 의원들의 6월 지방선거 차출, 즉 광주시장 선거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광주지역 의원은 모두 3명으로, 4선의 박주선(동남동), 김동철(광산갑) 의원과 재선의 권은희 의원(광산을) 등이다.

박 의원은 당 공동대표, 김 의원은 원내대표, 권 의원은 광주지역 총책임자로서 지방선거 출전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바른미래당은 대신 참신하고 역량있는

박주선·김동철·주승용·권은희 등 불출마 가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참신한 외부인사 영입”

외부인사를 영입해 단일후보로 내세울 계획이다.

현재 영입 대상에 오른 인사로는 중견 여성법조인과 경제인,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 등이 자전타전 거론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인정 받으신 분들로, 그동안 정치권에 접해 발을 내딛지 않은 한미디로 너망 있는 정치 신인들”이라고 귀띔했다.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시 됐던 4선의 주승용(여수을) 의원도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가 탈당하고 전남에서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본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내 개인의 선거보다는 전남선거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신인 발굴 등을 통해 새 바람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전남지사 후보 영입도 추

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 바른미래당 전남지사 후보로는 2~3명의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1당 사수 민주평화당은 원내 교섭단체(최소 20석) 구성을 지상과제로 삼으며 현역 의원 차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호남 광역단체장 선거전은 비(非) 현역 정치인과 영입 인사들간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거 역시 당세(黨勢)를 확장하고 원내의석을 확보하는 지름길로 보고 능력있고 신망높은 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



정치쇼?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의원이 농성 중이던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 경로로 방남했다는 소식에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홍준표 당 대표와 김영철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소속 의원 80여명, 당원 및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 대표단의 이동 경로로 예측된 통일대교 남단을 찾아 전차선을 막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영철 방한처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 등 6명이 통일대교 남단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오전 7시 50분 무렵부터 의원 및 지지자 등이 추가로 합류해 수백명이 2.3km 차선 내비의 대형 태극기를 비추며 펼쳐놓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 한국노총 전남본부 대의원대회 성료

올해 사업계획 예산 등 의결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27일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노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김영미 광주지부 공동노동위원장, 석동현 전남경총 상임부회장 등 내외귀빈과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가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올해 핵심과제 및 사업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운동전개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상담 활동전개 △단위노동조합 조합원 지역순회 특별교육 실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단체협약 체결지도 △소외받는 노동자를 위한 조직 확대 (노동조합 설립) 사업 등을 선정했다.

이신원 의장은 “촛불민심을 배경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과 관련하여 크게 세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 바로 그것으로 관련 세부 정책들이 잘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노사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현재의 1백만 조직을 올해는 2백만 조직으로 확대 할 것”이라며 “항상 낮은 자세로 동지들과 함께하여 현장의 사안을 해결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3.1절 휴무로 다음 호 5일자 발행합니다

### 광주·전남 곳곳서 99주기 3·1절 기념행사 펼쳐진다

올해로 99주기를 맞는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지난해 탄핵 시국과 맞물려 배부되지 않았던 태극기도 시민들에게 다시 전달된다.

광주시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내달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거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소형 태극기 등 100여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탄핵 시국과 맞물려 태극기 배부가 취소됐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도 펼쳐진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12시 5·18민주광장에서 ‘독립 완전한 자주권을 외치다’라는 주제로 11차 광주 수요시위를 개최한다. 3·1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태극기 만세 운동도 재현된다.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 제2어린이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펼친다.

전남도도 이날 오전 기념식을 거행하며 순천 낙안 3·1독립운동 기념탑 광장 등 전남 곳곳에서도 3·1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광주 3·1 만세운동 발원지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서도 지난해 하지 않았던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내달 10일 재개한다.

학생들은 당시 선배들이 착용했던 의상을 입고 대형 태극기를 펼친 채 만세운동을 재현할 예정이다.



우원식



김성태



우원식

##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ENERGY 4.0**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우주기공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합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천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상풍력, 심령전망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솔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